

답 없는 '청년 불잡기'...광주시·전남도 청년정책 확 바꾼다

고른 지원 안되고 각종 정책 간 연계성 미흡 중복되는 사업들 많아 청년층 순수출 지역 내 소비·생산효과 떨어뜨리고 총생산성 감소 광주시 청년 일자리 524억여원·전남도 농촌서 살아보기 등 확대

광주시와 전남도, 각 지자체들이 지역 청년들을 불잡기 위해 각종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청년층 인구 순수출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년정책의 홍보 부족 등으로 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져 고르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각종 청년 정책 간 연계성이 미흡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 정책에 대한 집중과 홍보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청년 유출은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의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청년층 유출은 지역경제 위축 야기-지역 소비·생산의 주체인 청년인구의 역외유출은 지역 인적자본의 감소 등을 통해 지역 경제력과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연구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졸자의 50%, 전남지역 대졸자 63%가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고 있고, 이 가운데 5명 중 1명은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경제력 유출규모)는 광주의 경우 2016년 2969억원, 2018년 2150억원 등 매년 2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전남은 2016년 993억원, 2018년 1117억원으로 추정된다. 청년층 순수출은 지역 내 소비효과와 생산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지역 인적자본의 감소를 초래해 지역 총생산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광주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만든다-광주시는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와 올해 신규로 추진할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852억원을 투입해 84건의 청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르게 지원하는 청년 정책을 정립하고, 청년 참여와 거버넌스 활성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청년 구직·금융지원·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청년 자립기반 지원으로 지역 정착 유도에 힘을 쏟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져 고르게 지원되지 못한 점, 청년정책 간 연계성 미흡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광주시는 올해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라는 목표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취·창업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청년 일자리 정책 38개 사업에 524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거비 절감, 주거공간 제

공 등 주거 정책 5개 사업에 1097억여원을 투입한다. 또한, 청년미래역량 강화와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청년 교육사업 15개 사업(209억4700만원)을, 취약계층 자산형성과 경제·문화전 안전망 조성을 위한 복지·문화정책 25개 사업(199억여원), 청년소통 기반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사업도 10개 사업(22억여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무려 1조 넘게 쏟아부었는데도...-전남도는 지난해 121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입한 예산은 국비 등을 합해 모두 1조 2883억3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청년들 눈길을 끄는 사업도 상당수였다. 우선,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전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019년 추진했다.

최소 5-60일 간 농·산·어촌 삶을 직접 체험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 성공적 귀농·어촌 이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게 사업 취지였다. 정부도 정책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2021년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명칭으로 전국에 확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119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할 정도로 호응도 많았다. 전남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개 마을(308명 참가)이 사업을 운영했고, 이들 중 55명(18%)은 전남으로 전입, 터를 옮겨 인생 2막을 설계하고 있다.

49세 이하 청년부부가 6개월 이상 전남에 살면 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주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도 2년 간 100억원 가까이 투입했다. 올해도 전남보다 예산을 늘려 5000부부에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창업·일자리 늘려보자는 취지로, 순천·곡성·영광·완도 등에서 지난해부터 추진중이다. 비슷한 형태로 행안부가 추진해온 '갠잡아 마을'(2018년), 신안 주섬주섬마을(2021년), 강진 병영창작상단(2022년) 등도 효율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안군은 2019년부터 바다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5-24t 규모의 배 11척(흑산 4, 비금 2, 하의 2, 증도·도초·안좌 각 1척)을 사들여 청년 어업인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은 최장 3년 간 실습농장(온실)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청년 농부 집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또 2026년까지 610억원을 투입해 이같은 실습농장을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호남청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향후 3년 간 연간 300명의 청년 인재를 양성, 청년들의 목소리를 결집시키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올해 본격화할 계획이다. 오는 2031년까지 젊은 농·어업인들이 농사와 양식업 등에 쉽게 진입해 기술을 익히고 창업·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청년 농어업인 1만명 이상 육성'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ADNEC)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UAE와 탄소중립 협력...경제 기회 증대될 것"

원전에 청정에너지까지 협력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UAE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탄소중립 분야까지 확대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리더십이 더욱 커지고, 경제적 협력 기회 역시 증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UAE가 지난 2021년 중동 지역에

서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아부다비에 세계 최초의 탄소제로 도시인 '마스다라'를 짓고 있다며 "탈탄소 스타트업의 성지로 이곳 아부다비가 부상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며 "무탄소 전원인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올해는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제사회와의 탄소중립 약속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협력 방안과 관련해 "원전 협력에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저장포집활용

(CCUS) 등 청정에너지 협력까지 더해진다면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시티 건설도 양국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양국의 손으로 세계 곳곳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말 UAE에서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 대해 "올해 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의 진전 여부를 최초로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이 이뤄진다"며 "기후 위기에 따른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지원기금 조성 방안을 구체화해야 하는 회의"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검찰,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774억3540만원 추징 요청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천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애초 12일 예정된 결심공판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연예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

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이 열리기 직전 도주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해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김 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 학 과	23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0
사범	유아교육과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4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1. 2(월)
· 전 형 일: 2023. 1. 9(월)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신학(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 형 일: 2023. 2. 6(월)

사랑과 감사의 68년

1954 ~ 2022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